

박준표 “내년 시즌 KIA 복귀할 날 기다려요”

경찰청서 군복무 ... 퓨처스 리그 다승 1위·평균자책점 1위 2관왕
“친정팀 상대로 마운드에 오르니 긴장되고 진짜 다리가 떨리네요”

친정팀을 상대로 경찰청 선수로서의 마지막 등판을 소화한 투수 박준표의 소감은 “떨렸다”였다. 박준표는 지난달 31일 익숙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올랐다. 친정팀인 KIA 타이거즈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 선발로 나선 박준표는 “진짜 떨렸다. 원래 긴장 안 하는 데, (KIA)애들이 야유도 하고(웃음). 1회에는 진짜 다리가 떨렸다”고 언급했다. 2015시즌이 끝나고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시작한 박준표는 오는 10월 10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4일 두산 베어스와 경기를 치른 경찰청은 이제 두 경기만 소화하면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한다. KIA전은 ‘경찰청 선수’로서 박준표가 마지막으로 치른 경기였다.

돌아갈 친정이라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타이틀 수성’이라는 목표도 있었던 만큼 박준표에게는 떨리는 하루였다.

박준표는 이날 5.1이닝 4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역시 KIA 소속의 전상현과 퓨처스리그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평균자책점을 2.37로 낮추면서 부문 1위도 확정했다.

‘투수들의 무덤’으로 통하는 벽제구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만큼 박준표는 평균자책점 1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마지막 등판이었던 KIA전에는 실전 감각 조율을 위해 이명기-유민상-배나디나-최형우-이범호-나지완-최원준-김민식-김선빈 등 주축 타자들이 총출동했다.

박준표는 “올 시즌 시작하면서 선발 역할을 맡는 경우 10승, 불펜 투수로 뛴 경우는 10홀드를 하자고 생각했다. 또 3점대 평균자책점, 전 경기 다 던지기를 목표로 했는데 설정한 것보다 더 잘 지켜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박준표는 입대 전 KIA 마운드의 ‘마당쇠’였다. 올 시즌은 퓨처스리그를 대표하는 선발투수로 자리

를 굳히며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박준표는 “매일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선발 자리가 적응이 안 됐다(웃음)”며 “대만 캠프에서 완봉승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또 군대 오면서 체인지업을 첫 번째 목표로 했는데 이한진 코치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다. 뛰어나게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준급 커브에 체인지업을 더한 박준표는 직구 스피드 보다는 움직임으로 승부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스피드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선발로 많은 공을 던지다 보니 강하게 던질 수 없었다. 대신 싱커로 승부를 하고 있다.투심성 싱커라고 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에게는 군복무의 시간이 ‘피하고 싶은 2년’일지도 모르지만 박준표에게는 ‘귀한 2년’이었다.

박준표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또 새로운 동료들과 매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정수빈 형과 톱메이트로 지냈고, 이대은 형은 정말 긍정왕이다. 김태군 형도 내 공을 받아주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준다”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또 “지난해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꼭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해태 팬이었다. 우승 받지 못한 거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며 “막상 제대가 눈앞에 보이니 좋기도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든다. 그래도 빨리 내년이 오면 좋겠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경찰청 투수 박준표가 지난달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친정’ KIA를 상대로 공을 던지고 있다. 박준표는 이 경기에서 5.1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평균자책점 1위에 이어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KIA ‘퓨처스타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최근 인도네시아를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했다. KIA 양현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 왼쪽부터) 김요한 박대현 김동준 김주홍. <KIA 타이거즈>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꿈나무들 AG 야구 경기 관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의 야구 꿈나무 장학생들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 경기 관람했다.

KIA 타이거즈와 기자동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의 ‘퓨처스타 프로젝트’ 장학생들이 최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아시안게임 현장을 방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또 현지 봉사활동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KIA는 야구꿈나무 장기육성 프로그램인 ‘퓨처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야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3명씩 선발해 3년간 장학금과 장비구입비를 맞춤 지원하고, 국제 대회 야구경기 관람을 통해 꿈을 키우게 할 예정이다. 올해 장학생은 군산중 김요한, 진흥고 김주홍, 중앙고 장민호, 진흥중 이재원, 박대현, 군산상고 김동준 등 총 6명이다.

한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KIA 선수 성적과 연계해 기자동차 및 KIA 구단 임직원과 선수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모드리치 살라

메시가 없네 ...

FIFA 올해의 남자 선수 후보

호날두·모드리치·살라 선정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무함마드 살라(리버풀)가 최고의 선수 자존심을 걸고 2라운드 대결을 벌이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 2018년 올해의 남자 선수 후보로 호날두와 모드리치, 살라 등 최종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명은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 오른 데 이어 또 한 번 자존심 경쟁을 펼친다.

UEFA 올해의 선수상의 영예는 2017-2018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3연패를 이끌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국 크로아티아의 준우승에 앞장선 모드리치가 안았다.

1991년 제정된 FIFA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양분해왔다.

호날두는 2008년과 2016·2017년 수상자로 뽑혔고, 메시는 2009년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통합 운영된 FIFA 발롱도르는 호날두가 2013·2014년 수상했고 메시는 2010·2011·2012·2015년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메시는 올해에는 3명의 수상자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호날두는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로 이적하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 달성에 앞장서고, 15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살라는 리버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주도했고, EPL에서 32골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한편 FIFA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투표, 팬 투표, 미디어 투표(가중치 각 25%)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AG 남녀 축구 선수들

축구협 포상금 받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확한 축구 태극전사들이 포상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4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남자 대표팀과 3회 연속 동메달을 딴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존 아시안게임 때 지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윤덕여 감독이 지휘한 여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에 막혔지만 3-4위 결정전에서 대만을 4-0으로 완파하고 3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했다.

안방에서 열렸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금메달을 딴 남자 대표팀은 선수 1인당 1500만원, 동메달을 수확한 여자 대표팀은 선수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당시 인천 대회 때 포상금을 받았던 선수들은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고(故) 이광중 감독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3000만원을 모아 성금으로 쾌척했다.

이번에는 원정 대회인 테다 극적인 승부로 국민에 감동을 선사한 만큼 4년 전 대회보다 포상금 액수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김학범호의 주장으로 금메달 사냥에 앞장선 손흥민(토트넘)과 9골을 터뜨린 황의조(김해 오사카) 등 20명의 남자 선수들은 15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메달을 지휘한 김학범 감독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안팎의 격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조소연(현시 레이디스)과 이민아(고베 아이나)도 500만원 안팎의 포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연합뉴스

‘오지환 논란’ 선수·감독만의 문제일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의 오지환이 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은 3일 귀국했지만 모두 경적만 표정이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선수 선발’ 논란이 일면서 야구 팬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팬들의 우려와 논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오지환(28·LG·사진)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가 상무나 경찰청 야구단에 입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지만 오지환은 아시안게임 대표로 금메달을 따서 병역을 면제받겠다고 모험을 하기로 했다.

오지환은 2년 전 경찰청에 지원했다가 팔복 문신으로 탈락했다. 함께 탈락한 이대은은 문신을 지우고 재지원했지만, 오지환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자신의 야구인생을 걸기로 했다.

이때부터 야구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2009년 프로 데뷔한 오지환은 단 한 번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무순배정으로 버티는지, 자신을 뽑아달라는 시위인지 포털 게시판이 뜨거워졌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선발한 선동열 감독의

LG 구단, 대표팀에 모두 떠넘겨

KBO, 사태 예견됐음에도 ‘뒷짐’

행보도 석연찮다.

선 감독과 가까운 지인은 “선 감독이 선발 하루 전까지 오지환은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표선발 회의에 참석한 유지형 LG 코치가 ‘오지환 발탁’을 강력하게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선수 선발의 모든 책임은 결국 감독이 지는 것이다.

선 감독은 대표선수 선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지환을 백업 유격수로 뽑았다”고 밝혔으나 성적을 따져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그렇다면 ‘오지환 논란’은 선수 본인과 감독만의 잘못일까.

오지환의 소속팀 LG 구단은 지난해부터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류종일 LG 감독은 오히려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뽑겠다”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프로구단에서 선수들의 병역 문제는 부상 관리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업무다.

LG와 한지붕에 있는 두산은 주전 선수의 기량과 전성기, FA 시기 등을 고려해 신인 선수를 언제 입대시키는 게 가장 좋을지를 결정한다.

이정후(백산)처럼 입단 2~3년 이내에 리그 정상급 선수로 활약할 재목이 아니면 일찍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게 선수 본인은 물론 구단의 선수 수급에도 훨씬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LG는 오지환을 대책없이 9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대표팀에 떠넘겼다.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을 선발하고 파견하는 주체인 KBO의 태도도 마뜩찮다.

KBO는 논란이 일찌감치 예견됐음에도 ‘선수 선발은 감독의 전권’이라며 뒷짐만 지는 모양새다.

KBO 총재가 누구를 뽑거나 뽑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되는 선수 선발에 관해 최소한의 자격 조건과 기준조차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감독에게 미룬 것은 KBO의 직무유기다.

팬들은 오지환의 병역 회피 행보와 선 감독의 부적절한 선수 선발에 화가 났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KBO와 LG 구단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 /연합뉴스